

심연 위의 사투

창백한 햇살,
지중해처럼 깊고 고요한 눈빛 아래,
고요히 세월을 짊어진 외로운 조각배.

줄 끝에서 울린 진동,
심연의 끝에서 모습을 드러낸
검푸른 칼날 같은 청새치

“형제여”
노인이 속삭였다.

“너는 살아있고, 나는 굶주렸다.
하지만 오늘, 우리 중 하나는
바다에 피를 뿌릴 것이다”

밤이 오고, 별은 창처럼 곱히고,
손은 피범벅, 줄은 뱀처럼 휘감겨 살을 찢는다.
하지만 노인은 놓지 않는다.
아니, 놓아선 안 된다.

날이 밝고,
청새치의 창끝이 태양을 찌를 듯 했지만,
노인은 끌어당기고, 끌어당겨
드디어 바다를 품에 안는다.



GDU 101 고전 문화예술 공모전 작품 소개

고전 도서명	노인과 바다 <헤밍웨이>
작품 설명	노인과 바다라는 책은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책이지만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것과 어른들이 받아들이는 내용은 분명 다를 것이라 생각한다. 노인이 바다의 청새치와 끈질기게 사투를 벌이는 노인의 의지를 중점으로 작품을 만들었다. 전체적인 배경은 바다와 파도를 상징하는 파란 계열로 하였고, 청새치와 노인의 사투를 전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노인을 하단 오른쪽, 청새치를 상단에 그려 시의 내용이 더욱 실감 나도록 표현하였다.